

대단원 종합 문제

3.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학년 반 번 이름

점수

확인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01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의 문자 생활로 알맞은 것은?



- 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었다.
- ②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있었다.
- ③ 계층에 따라 쓰는 말이 달라 계층간 소통이 불가능했다.
- ④ 양반들도 한자를 배우기가 어려워 문자 생활을 하지 못했다.
- ⑤ 중국의 한자를 빌려 표기하여 일반 백성들은 문자 생활이 어려웠다.

한글의 창제 정신

02 밑줄 친 ㉠~㉣에 담긴 창제 정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 쉽게 익혀서 남마다 쓰는 데 편리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	㉢
①	애민 정신	실용 정신	자주정신
②	애민 정신	자주정신	실용 정신
③	자주정신	실용 정신	애민 정신
④	자주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
⑤	실용 정신	자주정신	애민 정신

훈민정음의 창제

03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제한 원리를 밝힌 책이 남아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서 1443년)*
- ② 세종 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이름이다.
- ③ 한자의 제자 원리에 따라 만든 문자이다. *(한자의 원리는 같은 것을 뺀)*
- ④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한자와는 다른 문자*
- ⑤ 창제 당시에는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자음자 'ㄱ'의 창제 원리

04 자음자 'ㄱ'을 만든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입의 모양을 본떴다. *ㄱ*
- ② 이의 모양을 본떴다. *ㅅ*
- ③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ㅇ*
- ④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ㄴ*
- 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ㄱ*

한글 창제 자음자의 창제 원리

05 <보기>는 자음자의 제자 원리 중 가획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자음자를 각각 쓰시오.

보기
· ㄱ → (㉠) ㄱ
· ㅅ → (㉡) → (㉢) ㅅ, ㅆ

한글의 자음 기본자

06 자음 기본자만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ㄱ, ㄷ, ㅅ
- ② ㄱ, ㄴ, ㄷ, ㅅ
- ③ ㄱ, ㄴ, ㅅ, ㄷ, ㅇ
- ④ ㄱ, ㄷ, ㅍ, ㅈ, ㅎ
- ⑤ ㄱ, ㄷ, ㅂ, ㅅ, ㅈ, ㅎ

자음자의 창제 원리

07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조건
· 'ㄱ'과 'ㅋ'이 각각 어떤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밝히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ㄱ'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ㅋ'은 'ㄱ'에 획을 더해서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한글의 창제 원리

08 <보기>의 창제 원리로 만든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사물이나 대상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상형의 원리*
① . ② ㅇ ③ - ④ ㅁ ⑤ |
하늘 목구멍 땅 사람

자음자의 창제 원리

09 자음자 'ㅈ'이 만들어진 원리를 <보기>와 같이 설명한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ㅈ*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 (㉠)
에 (㉡)에 따라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	㉡	㉢
①	입	ㅅ	혀의 높이
②	이	ㅅ	혀의 높이
③	이	ㅅ	소리의 세기
④	이	ㄴ	소리의 세기
⑤	목구멍	ㄴ	소리의 세기

한글의 모음 기본자

10 모음 기본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ㅏ', 'ㅑ', 'ㅓ'가 해당한다.
- ②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
- ③ 'ㅓ'는 둥근 하늘을 본뜬 글자이다.
- ④ 'ㅑ'는 평평한 땅을 본뜬 글자이다.
- ⑤ 'ㅣ'는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모음자의 창제 원리

11 <보기>의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든 모음자가 아닌 것은?

보기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 합성의 원리*
① ㅏ ② ㅑ ③ ㅓ ④ ㅕ ⑤ ㅗ
모음 기본자 중 하나

모음자의 창제 원리

12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ㅓ'는 'ㅏ'에 'ㅣ'를 ~~한~~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 ② 'ㅑ'는 'ㅓ'에 'ㅗ'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 ③ 'ㅕ'는 'ㅓ'에 'ㅑ'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 ④ 'ㅗ'는 'ㅓ'에 'ㅑ'를 두 번 합하여 만들었다.
- ⑤ 'ㅓ'는 'ㅏ'에 'ㅣ'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한글 창제 자음자의 창제 원리

13 <보기>에서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를 모두 찾아 쓰시오.

보기
ㄴ, ㄷ, ㅍ, ㅈ, ㅊ, ㅋ, ㅌ, ㄹ, ㅍ, ㅍ
비슷한 여린하늘

한글의 창제 원리

14 다음 단어에 쓰인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하늘
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자 *ㅡ*
②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 *ㄴ*
③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에 가획한 자음자 *ㅎ*
④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에 가획한 자음자 *ㄴ, ㄷ, ㅌ*
⑤ 사람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 하늘을 본떠 만든 기본자를 합하여 만든 모음자 *ㅏ*

15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서 음절 단위로 쓰는 방식이다.
- ②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모두 채워 써야 한다. **✗**
- ③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한글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 ④ 적은 수의 음운을 모아쓰기 방식으로 조합하여 수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어 효율적이다.
- 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한적이므로 모아쓰기를 하면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다.

16 한글의 특징을 다른 문자들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한글과 영어 알파벳은 모두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틀림 문자**
- ②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인 반면,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틀림 문자**
- ③ 한글은 글자 수가 한자보다 많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거이서**
- ④ 한글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들끼리 모양이 비슷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그러한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g.k/n.d.t**
- ⑤ 한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의 수만큼 글자가 필요하지만,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를 조합해서 쓸 수 있다.

17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한글	영어 알파벳
ㄱ - ㅋ	g - k
ㄴ - ㄷ - ㄹ	n - d - t
ㅁ - ㅂ - ㅍ	m - b - p

조건

- 제시된 자료와 관련 있는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밝히고 한글의 특징을 서술할 것
- 영어 알파벳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글의 장점을 서술할 것

가장의 원리
배우고 기억하기 쉽다.

18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컴퓨터 자판에 거의 모든 글자를 배열할 수 있다.
- ② 적은 수의 글자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③ 음절 단위로 표기하므로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 ⑤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실용적이다.

[19~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한 실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잠잠해졌어요.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자음의 기본자는 (ㄱ)을 본떠 만들었어요. 각각 (ㄴ), (ㄷ), (ㄹ) 모양을 본뜬 ‘ㄴ’, ‘ㄷ’, ‘ㄹ’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뜬 ‘ㅇ’, 혀끝이 윗입술에 닿는 모습을 본뜬 ‘ㅇ’ (ㄹ), 이렇게 다섯 개예요. 모음 역시 하늘(·), 땅(ㅡ), 사람(ㅣ)을 본뜬데요. 과거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과 땅, 사람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본뜬 것이예요. 이 ④기본자들에 획을 더하거나 ⑤이들을 서로 조합하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나간 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글자 중에 이처럼 창제 원리와 거기에 담긴 철학적 원리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없어요. 타이 문자나 키릴 문자처럼 작자와 만든 과정이 알려진 글자는 몇 개 있지만, 훈민정음처럼 철학적 원리와 사용법, 보기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책으로 펴내기까지 한 글자는 없지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랍니다.

19 ㉠~㉤에 들어갈 말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발음 기관
- ② ㉡ - 이
- ③ ㉢ - 목구멍
- ④ ㉣ - 혀
- ⑤ ㉤ - 혀

20 밑줄 친 ㉠, ㉡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 - 기
- ② ㉡ - ㅏ, ㅑ, ㅓ
- ③ ㉢ -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④ ㉣ -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⑤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21~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21 (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알맞은 것은?

- ① 여학생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다.
- ② 여학생이 남학생의 제안을 무시했다.
- ③ 남학생이 자신 없는 태도로 이야기했다.
- ④ 남학생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다.
- ⑤ 남학생이 여학생의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22 (나)에 나타난 듣기 태도의 문제점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제**
- ② 상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했다.
- ③ 상대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영이**
- ④ 상대와 눈을 맞추지 않고 무표정하게 들었다.
- ⑤ 상대 쪽으로 몸을 향하지 않고 휴대 전화만 바라봤다. **신제**

[23~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재경: 서울아, 너는 여행이 뭐라고 생각해?

서울: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편하게 쉬는 것이 여행이지.

재경: 그렇구나.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해.

서울: 네 말을 들으니까 여행에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행은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

(나) 지혁: 소정아, 주말에 뭐 했어?

소정: 마을 장터에 갔다가 세것은 아니지만 괜찮아 보이는 책을 한 권 샀어.

지혁: 마을 장터에서 그런 책을 팔기도 해?

소정: 응. 책뿐만 아니라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은 무엇이든 팔던데?

지혁: 아하, 사회 시간에 배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구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였지?

소정: 맞아. 그러고 보니 이번 마을 장터가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었네.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지혁: 나는 물건을 사 본 적은 없는데, 아무도 타지 않아서 먼지만

생이던 우리 집 자전거를 사촌 동생에게 준 적이 있어. 동생이 무척 좋아하면서 매일 타고 다닌대. 이런 것도 아나바다 운동이지?

소정: 그럼. 쓸모없던 자전거를 누가 다시 잘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지혁: 그러네. 너는 마을 장터에서 책을 사 보니까 어땠어?

소정: 처음에는 남이 보던 책을 산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값이 싸고 책 상태도 깨끗해 보이길래 한번 사 봤거든. 정작 책을 읽어 보니 아무런지도 않더라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지혁: 네 말을 듣고 보니 마을 장터와 같은 아나바다 운동이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겠어. 나도 진작 알았더라면 마을 장터에 갔을 텐데 아쉽다.

소정: 그래? 잘됐다. 매달 두 번째 주말에 마을 장터가 열린대. 다음에 같이 가 볼래?

지혁: 좋아. 다음에 같이 가서 내게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다) 준희: 내일 국어 모둠 회의 때 자료를 찾아가야 하는데, 오늘 도서관이 문을 닫았어. 이번 주까지 국어 수행 평가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한솔: 국어 수행 평가 과제는 다음 주까지잖아.

준희: 그런가? 그래도 내일 모둠 회의 전까지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한솔: 사회 수행 평가는 이번 주까지인데, 국어 수행평가는 다음 주까지가 맞아.

준희: 제출 기한에 여유가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내일 모둠 회의가 잘 진행되려면 자료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자료 검색은 다 했고 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면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한솔: 검색을 다 했으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되잖아.

준희: 오늘 도서관 쉬는 날이니까.

듣기 말하기의 특성

23 (가) ~ (다)에서 알 수 있는 듣기·말하기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서로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거나 정리한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대화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활용하여 대화에 참여한다.
- ③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은 변하지 않으며 듣는 이는 말하는 이의 생각을 듣고 배경지식을 구성한다.
- ④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대화를 통해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대화 내용 파악하기

24 (가)의 대화 후에 서울이가 정리한 '여행'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곳을 다니는 것
- ②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 ③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 ④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것 *사람의 마지막 말.*
- ⑤ 멋진 풍경을 즐기며 쉬는 것

대화 내용 파악하기

25 (나)의 대화를 듣고 지혁이가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메모했다고 할 때,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나바다 운동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다. 소정이가 주말에 간 ㉡ 마을 장터가 바로 아나바다 운동에 해당한다. 소정이와의 대화를 통해 ㉢ 중고 물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 누구에게는 필요 없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마을 장터와 같은 아나바다 운동은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지혁이가 비닐가게에서 옷을 사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아나바다 운동.

바람직한 대화 태도

26 (다)의 한솔이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대화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
- ②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파악하는 태도
- ③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반응하는 태도
- ④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 ⑤ 상대의 말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태도 *태도한 태도.*

[27~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애: 효잔아, 내 이야기 좀 들어 줄래?
 효잔: 무슨 고민 있어? 편하게 말해 봐.
 지애: 사실은 친구랑 조금 다했어.
 효잔: 친구랑 다투어서 고민이구나. ㉠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
 지애: 내가 휴대 전화가 없어져서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친구는 같이 걱정해 주기는커녕 내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고 터박만 하지 뭐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해 버렸어.
 효잔: ㉡ (고개를 끄덕이며) ㉢ 저런, 친구가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겠네. 그렇지만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은 후회되었네.
 지애: 속상하기도 하고, 친구와 멀어지게 된 것 같아 괴로워.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효잔: ㉣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그래, 답답하겠네. 그 친구에게 네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지애: 그러고 싶지만 친구가 들어 주지 않을까 봐 겁이 나.
 효잔: 그럴 수도 있겠어. ㉤ 하지만 그 친구도 너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용기를 내서 먼저 말해 보는 것이 어때?
 지애: 그럴까? 너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친구에게 내 마음을 말할 용기가 나는 것 같아. 네 조언대로 해 볼게.

(나) 석환: 대학에도 영화를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요. 또 제가 하려는 일은 영화배우 이런 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일이고요. 누나: ㉠ (말을 차르고 끼어들며) 아, 윤석환, 너도 곧 고등학생 될 거잖아? 나는 고3 되는 거고 너 이럴 때 아니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이라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엄마: 그래, 네 누나 말이 맞아, 너도 이제 공부할 시기라고.
 석환: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 뭐?
 석환: 나가세요.
 누나: 윤석환,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이게 뭐야?
 석환: 엄마,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나: 아,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줄 알아? 없는 형편에 과외비, 학원비 갖다 바쳤는데, 너라는 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공부하는 척 문 닫고 들어앉아 시나리오나 쓰고, 영화 잡지나 읽고, 그런 너를 어떻게 이해해? 석환: 누나는 좀 가만히 있어. 엄마! 저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요.
 엄마: 누가 영화감독 하지 말라고 했니? 엄마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가 없어.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는 애가, 응?
 석환: (잠시 침묵)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가 주세요.

공감하며 대화하기

27 (가)에서 알 수 있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표시하기 ㉠
- ② 부드럽게 눈을 맞추고 바라보며 듣기 ㉡
- ③ 자신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이끌기
- ④ 상대가 한 말을 반복하거나 정리해서 말하기 ㉢
- ⑤ 적절하게 질문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대화 태도의 문제점

28 (나)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
- ② 배경지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③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 ④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았다.
- ⑤ 협력적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29 ㉠ ~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절문을 던졌으로써 상대가 편안하게 다음 말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적 표현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 ㉠ ㉡ ㉢ ㉣ ㉤

듣기 말하기

30 밑줄 친 ㉠을 <조건>에 맞게 고쳐 쓰시오. [5점]

조건

-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정리하는 표현을 활용하고, 상대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낼 것
- 비언어적 표현도 적절하게 고쳐 쓸 것

(고개를 끄덕이며) 너는 영화를 공부하고 싶다는 거잖아. 전과는 고민하고 남들하고 있는데 대견해.

★꼭 알아 두기

■한글의 창제 이유와 창제 정신

자주 정신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함.
애민 정신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실용 정신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함.

■자음자의 창제 원리: 상형

발음 기관의 모양	제자 원리	자음 기본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ㄱ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ㄴ
	입 모양을 본떴다.	ㅁ
	이의 모양을 본떴다.	ㄷ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ㅇ

■자음자의 창제 원리: 가획

자음 기본자	가획
ㄱ	ㅋ
ㄴ	ㄷ, ㅌ
ㅁ	ㅂ, ㅍ
ㄷ	ㅌ, ㅊ
ㅇ	ㅈ, ㅊ

■모음자의 창제 원리: 상형

모음 기본자	상형
ㅏ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뎜.
ㅓ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뎜.
ㅣ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뎜.

■모음자의 창제 원리: 합성

· 모음 기본자를 결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
예) ㅗ, ㅜ, ㅡ, ㅣ, ㅛ, ㅠ, ㅝ, ㅞ

■한글의 우수성

한글	·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한자보다 글자 수가 적음. 글자와 소리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함.
한자	· 글자의 모양을 통해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음.
영어	·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로, 글자의 개수가 매우 많음.
알파벳	· 하나의 글자가 다양하게 발음됨.
	·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없음.



·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 효율적임.
· 한글은 글자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배우고 기억하기 쉬움.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특성
· 제자 원리가 체계적임.
·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함.
↓
·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용적임.

★꼭 알아 두기

■듣기 · 말하기에 필요한 자세

-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음.
-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 · 말하기의 특성

- 듣기·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임.
-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서로의 반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나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개념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대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대화함.
- 상대와 눈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대화함.
-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상대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대화함.